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바트리키오스 주교순교자

부활 후 제6주일 / 소경 주일

성 세르기오스 고백자

제5조,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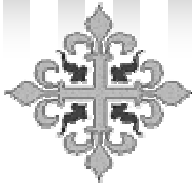
- 제1, 2, 3응송 / 봉독서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입당송 '모두 다 모여...' / 부활절 예식서 38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16, 16-34 / 255, 봉독서 73
- 복음경 : 요한 9, 1-38 / 102, B 24
- 성모송 / 부활절 예식서 26
- 영성체송 / 부활절 예식서 42
- '우리가 참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바트리키오스 주교순교자

교회에서는 5월 19일을 3세기 푸르시스의 주교였던 바트리키오스 주교순교자의 축일로 기념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그 당시 도시의 통치자였던 우상숭배자와 바트리키오스 주교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우상숭배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신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수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과 함께 따뜻한 치유의 물을 우리의 도시에 주셨습니다.” 바트리키오스 주교는 “우리 도시가 많은 혜택을 입고 또 치유를 일으키는 물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에게 준 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하느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연 현상, 과학의 발달, 기술의 발전에 놀라워하면서도 그 배후에 언제나 하느님의 권능과 지혜가 있다는 사실은 곧잘 망각합니다. “어느 집이든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4)



질투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약 20%는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짐작으로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질투는 나와 주변을 황폐화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성 사도 바울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잘난체하지 말고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5, 26) 질투의 감정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유해야 할 정상적인 삶이 파괴된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이웃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인식이 공유될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는 질투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인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인생에 있어서 질투는 모든 악의 첫째 조건이 된다. 질투는 죄의 첫째 원인이 되며 하늘과 땅을 더럽히는 첫째가는 독소이며 영원한 지옥 불의 불씨이다.

하늘에서 처음 죄지은 자는 사탄이다. 사탄은 하느님을 시기함으로써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낙원에서 처음 거역의 죄를 지은 자는 아담과 하와였다. 낙원에서 축출된 다음에 처음 범한 질투는 카인이 아우를 죽이게 하였다.

증오, 질투, 분노는 하느님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것들은 기쁨과는 대치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며 이웃들과 격리시킨다. 질투는 결코 친구를 맺어주지 않는다. 적은 선명하게 나타나지만, 질투는 은근히 나타난다.

아우를 살해한 카인은 일생을 괴롭게 지냈으며 요셉을 질투해서 팔아넘긴 그의 형들

은 뉘우치고 용서받기까지 죄의식 속에서 지냈다.

만약 다른 이들이 질투하면 할수록 그들을 더 친절하게 대하라. 그러면 하느님의 상이 클 것이다. 이웃 형제의 행복을 보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질투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적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형제의 흠을 남몰래 고쳐주는 것은 질투가 아니며, 남 앞에서 고쳐주는 척하며 흠잡는 것은 질투이다.

질투는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멀리 떼어 놓으며 이웃과 갈라놓는 무서운 악이다. 자기의 잘못을 아는 사람은 덕의 기본이 마련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4)

e) 예수의 몸을 장례지낸 뒤, 무덤은 커다란 돌로 봉인되고 로마군인들이 지켰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안식일 다음날, 곧 일요일 이른 아침 동이 틀 무렵, 예수를 따랐던 여성 몇 사람이 몸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 가보니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었다. 그래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놀라고 당황하였다. 그들은 바로 제자들에게 가 이런 사실을 알렸다.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가 여자들이 말한 것을 확인하였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는 몸을 굽혀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곧 뒤따라 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그도 역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제자는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요한 20:5-10)

여인들은 돌아섰으며, 두 명의 천사들이 그들을 반겼다. 둘 중 하나인 막달라 마리아는 정원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 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요한 20:17)

주님의 몸은 영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았다. 성경 안에는 자세한 내용의 다른 많은 자료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지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긴 힘들다. 하찮고 작은 내용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은 분명코 직접 본 사람들이 전해준 것이다. 무덤 안에 따로 잘 개켜져 놓여있던 머릿수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누군가 주님의 몸을 무덤 밖으로 꺼내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향료혼합물로 봉해져 시신을 싸맸던 (좁고 긴) 천들이 무덤 안에 모여 있었다. 봉인된 채 비어있는 무덤과 따로 놓여 있는 머릿수건도 있었다. 이것은 도둑이나 강도가 지나간 자리의 모습이 아니다. 만일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이 모든 것들은 흩어져 있었을 것이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성화 수업

올해도 소준 야누디스 교수의 지도로 성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5월 21일(월) ~ 6월 23일(토)까지, 매주 월~토 요일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성화 제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부활절 종례일 철야예배

올해도 부활절 종례일인 5월 15일 화요일 저녁에 철야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이날 예배는 부활절 밤 예배와 같은 예배로 특히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주시고, 미리 일정을 조정하여 철야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10시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됩니다.

■ 봄 야유회

오늘 성찬예배 후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봄 야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교우님들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봄 바자회

오는 5월 27일 오순절 주일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축제’ 바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불가리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하고 맛있는 대표 음식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 5월 16일(수) ▷ 부활절 종례일

· 5월 17일(목) ▷ 주 예수 그리스도 승천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 6371 / Fax (02) 365- 2698 / www.orthodoxkorea.org